

겁악재에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 與, 한동훈 역할론 '고민'

국민의 선택 4·10 총선

‘회갈 테러 사건’ 언급 등 악재 겹쳐 중도 확장에 정책공약·인물 필요 대통령실과 각세워야 승산 의견도

거대 양당의 공천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민주당보다 잡음이 덜 난 것으로 평가받던 국민의힘이 도태우·장예찬씨의 ‘막말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 민사회수석의 언론을 향한 ‘회갈 테러 사건’ 언급 등 악재가 겹친 것이다.

국민의힘이 원내1당이 되려면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불처럼 퍼져가는 정권심판론을 어떻게 꺼뜨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 경보음 커졌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과 리얼미터가 발표한 수도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확인됐다. 먼저, 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2주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7%)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다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32%로 역시 오차범위 내로 경합했는데, 지난 1주치의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4%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2주차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4.2%)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7.9%, 민주당은 40.8%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접전이였다. 2주차 조사에서 서울은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9%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1주치의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8.6%, 민주당이 45.4%를 기록했는데 수치상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사에 사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은 20대 대선, 중로구 보궐선거, 제7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며 좋은 흐름을 탔으나, 지난해 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 현상이 총선을 한달 앞두고 포착돼 여당 지도부로

서는 정권심판론 악화 전략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원톱 부담' 덜어줄 실력 있는 인재 필요

국민의힘의 서울에서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8일 “도태우 씨의 막말 논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사람들은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주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선 거도 뛰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고려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를 영입해 통합 선대위를 꾸린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에도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 교수는 “한 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언급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로 운동권 청산 등 진영 대결 구도를 만드려고 하다보니, 반사이득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약간 헛바퀴가 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중도 확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을 갖는 정책 공약 내지는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으로 충분, 용산궐 악재에 각세워야” 의견도

다만, 다른 전문가는 현재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선대위로 총선을 치르되, 대통령실이 국정 전면에 나서서 상황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의 하락세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에 대해 일반인들은 공정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전 장관 문제로 윤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된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면 정권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아직 여론조사에 안 잡혀 있는데, 황상무 수석 건도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정권심판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추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정권심판론이 잦아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이야기하면서 정권심판론은 많이 잦아 들은 바 있다”며 “선거 구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 건에서 한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미래세대 위한 연대·협력의 장 되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자유·평화가 창·혁신 꽃 피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18일 “국가와 정부에 주

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

호자인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서울은 불과 70여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민주주의를 통해 일군

자유와 평화는 창·혁신을 꽃피웠고, 오늘날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재난의 시대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유월절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반드시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성체(聖體)와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난과 위기 앞에서 당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교회
설립 60년
1964-2024

세계 175개국 7500개 교회에서 370만 성도가 거룩히 지키는
새 언약 유월절 대성회에 초대합니다.

유월절 알아보기

유월절(逾越節, Passover)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 담긴 하나님의 절기다. (출애굽기 12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 전날 저녁,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며 떡은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는 인류 구원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로 지칭하고 이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영생)을 약속했다.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watv.org